

옷의 힘

THE POWER OF CLOTHING

[특집]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위한 여정



이 셔츠,
이제 버려도 되겠지?

잠깐만요 엄마.
이 셔츠
버리지 마세요!

19

UNI
QLO

LifeWear

‘이 셔츠, 이제 버려도 되겠지?’



‘잠깐만요! 제 여행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Sustainability란 ‘지속 가능하다’ 는 뜻입니다.
천연 소재를 길러서 수확하고, 그것으로 옷감을 만들어 셔츠를 제작한 후, 점포에 운송하여 판매합니다.
밭에서 자란 목화가 셔츠가 되어 우리가 직접 입게 되기까지 자연과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지구환경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셔츠가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Sustainability입니다.

네 가지 영역

Sustainability
A to Z

유니클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하여 1)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제품생산 및 공급과정), 2) 상품, 3) 점포와 지역사회, 4) 임직원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은 원재료로부터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자원의 이용, 폐기물 처리, 작업자의 근무 환경입니다. 2)는 인권, 노동환경, 지구의 환경을 고려한 원재료 조달, 상품의 품질, 안전성, 내구성입니다. 3)은 점포의 에너지 효율, 지역사회와의 연계입니다. 4)는 인간의 다양성을 서로가 인정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입니다. 셔츠의 소재를 재배하는 사람, 셔츠를 제작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셔츠의 최종 사용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그 대상입니다.

Sustainability = 지속 가능한 것



목화는 셔츠의 소재 중 하나입니다. 한정된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가 목화를 키워냅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일' 입니다.
면(綿) =코튼(cotton)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소재입니다.
피부에 부드럽고 취급하기도 쉬워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계절 내내 면으로 된 옷을 입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는 목화 생산을 위한 광대한 목화밭이 있습니다.
목화를 대량 생산하는 밭이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세계적으로 검증과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터 코튼 이니셔티브
(Better Cotton Initiative, BCI)

Sustainability
A to Z

목화 재배에 필요한 물의 이용, 농약이나 비료 등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목화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2018년도에 친환경적인(sustainable) 목화 생산을 지향하는 비정부 기구(NGO) '베터 코튼 이니셔티브'에 가맹하였습니다.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을 비롯한 비정부 기구와 기업의 협력으로 창설된 BCI는 23개국, 160만 명의 목화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품질이 높고 내구성이 좋은 셔츠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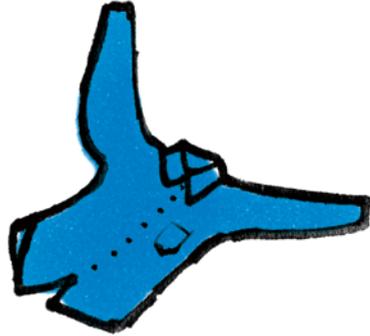
©Radius Images/amanaimages

Sustainability = 환경 부담을 줄이는 일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환경 대책이 사람들의 생활과 미래를 지킵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사람의 생활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셔츠의 옷감을 만들기 위해 전기와 물을 쓰는 거래처 공장의 배기, 배수까지도 포함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첨단 소재 공장인 루타이(魯泰)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실현하는 최신식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정수장에서는 지역의 생활 폐수도 함께 처리하는 등 공장이 앞장서서 지역 사회의 환경과 생활을 지키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 사람의 생활, 미래를 지키는 일



지역에서 채용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중국의 루타이 소재 공장. 시설의 자동화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종업원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근무 환경을 실현했습니다.

지역의 생활과 공장

Sustainability
A to Z

유니클로는 물, 에너지, 이산화탄소, 폐기물, 화학 물질, 노동환경 등 환경 부담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추진하는 글로벌 조직 '지속 가능한 의류 연합'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SAC)에 가맹했습니다. SAC가 정하는 환경 평가 기준에 따라 유니클로 상품 전체 생산량 중 70%를 차지하는 주요 소재 공장에서 환경 평가와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구체적인 삭감 목표를 내걸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봉제 공장에서는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공장 생산 능력에 따른 발주량과 납기를 상호 간에 면밀히 조사하여 공장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일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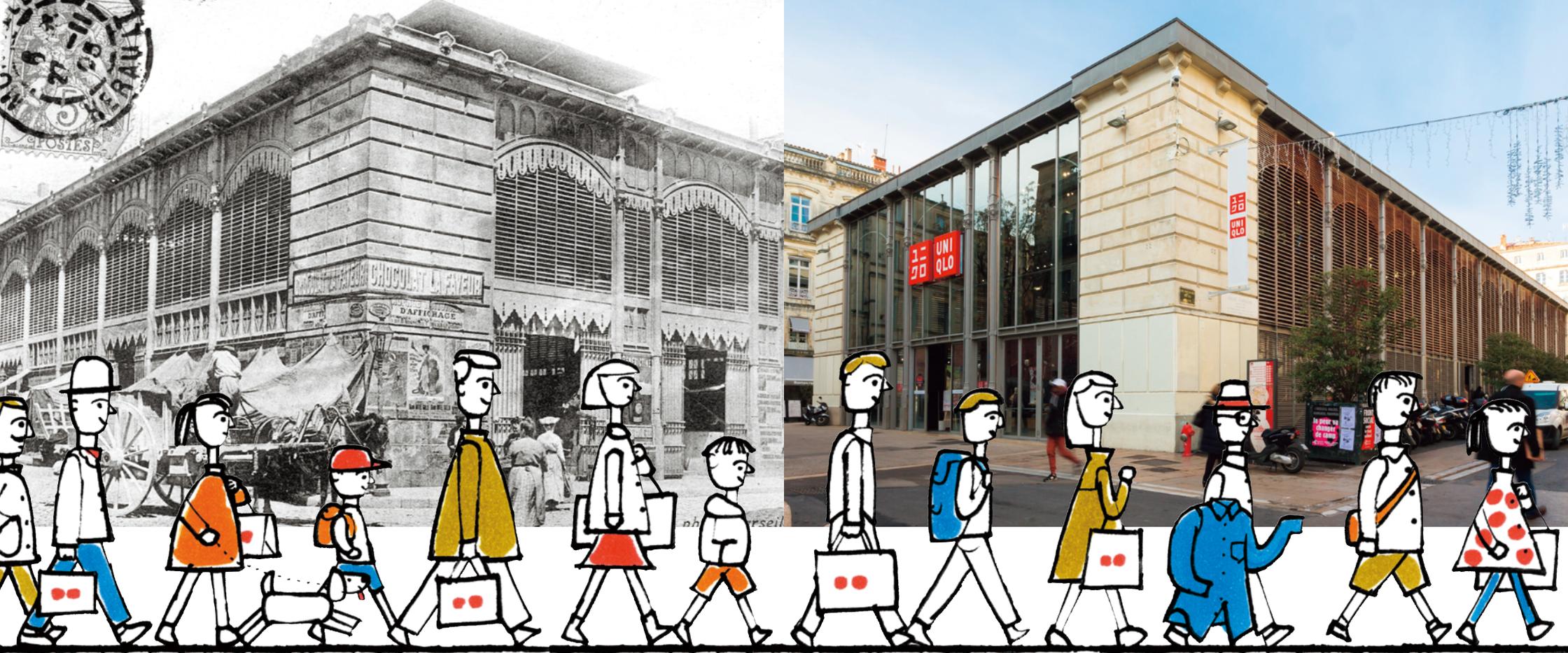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유니클로는 셔츠를 제작하는 사람의 인권, 안전, 건강을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거래처 공장과 함께 조성하고 있으며, 셔츠를 판매하는 점포에서는 장애인과 난민도 스태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다양한 개인이 자립하여 생활이 풍부해지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 근무환경

Sustainability
A to Z

더 나은 근무환경은 유니클로 직원뿐만 아니라 거래처 공장 직원에게도 필요합니다. 유니클로는 공장의 근무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장의 작업환경을 모니터링(감독)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 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클로 점포에서는 '1점포 1명'을 목표로 장애인 스태프를 고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난민 고용에 주목하여, 다양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조화로운 사회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 계승하여 미래로 건네는 일

점포는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합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계승하여 미래로 건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거리에는 여러 사람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새로운 점포를 늘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애착을 가지는 가게 만들기과 점포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계승하고, 새로운 매력을 더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합니다. 점포는 지역의 미래에 공헌합니다.

몽펠리에점의 사례

Sustainability A to Z

프랑스의 10대 도시 중 하나인 몽펠리에에는 중세부터 번영한 학술도시입니다. 그리고 몽펠리에 내 까스텔란느(Castellane)(19세기에 세워진 시내 최초의 철골 구조물)는 도시의 시장으로,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왔으며, 1999년에는 역사적인 건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은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아래층은 식품 매장, 위층은 상업 시설로 시

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유니클로 점포를 개점하기 위해 우리는 시 당국 및 소유주와 면밀한 상의를 거듭하여 바닥재와 천장, 조명 등 기존 것을 최대한 살리고, 역사적 건조물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유니클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점포와의 협업(collaboration)도 늘어, 지역 사회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다시 사용하는 것.
옷의 가치에는 아직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배턴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유니클로 의류는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점포에서 회수된 옷은 난민 캠프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옷은 방한, 방서(防暑), 안전, 위생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고 생활에 윤택함을 더해주며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만들고, 사회 참가를 돕습니다.
옷장에 잠들고 있는 옷은 없으신가요?



Sustainability = 배턴을 이어가는 일



당신의 옷이 세계로

Sustainability
A to Z

유니클로는 2006년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이하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세계 각지에 있는 난민과 피난민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2,558만 장의 옷을 전달했습니다. 유니클로의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은 점포 내 회수박스를 설치하고, 매년

고객으로부터 옷을 전달받아, 세계 각지에서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품질이 높고 적절한 가격의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의 가치가 세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옷의 힘을, 사회의 힘으로

좋은 옷을 만들고, 좋은 옷을 판매함으로써
세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좋은 옷이란, 심플하면서도 품질이 좋고, 오래 입을 수 있어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자연과의 공생을 생각하고,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 혁신을 이루어 내어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옷입니다.

좋은 옷은, 건강과 안전,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고객들과 함께 행동하며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http://www.uniqlo.com/kr/sustainability/>

유니클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관련 활동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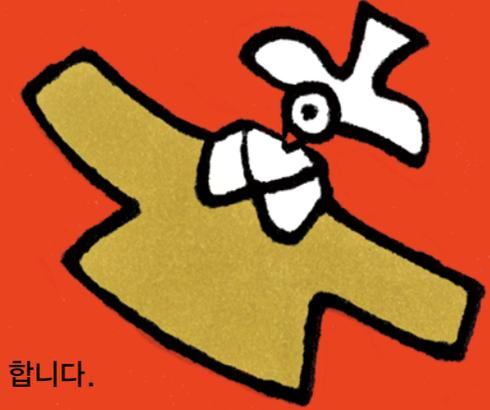
UNIQLO sustainability

Search



아동복이 부족합니다.

난민 아이들에게
옷은 큰 도움이 됩니다.
난민 아이들 중 일부는
외출복으로 적합한 셔츠가 없어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옷은 아이들의 존엄을 지키고
활기찬 기분을 유지하며
아이들이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
옷의 힘을 전해 주세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 입니다.



아이들에게 옷을

전 세계에서 급증하는 난민 중 약 50%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성장이 빠르고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옷이
필요합니다. 2016년, 유엔난민기구(UHCR)로부터 요청을 받은
아동복은 약 200만 벌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 많은 아동복이
모였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유니클로의 아동복을 유니클로 점포로 가져와 주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UNHCR <https://www.unhcr.or.kr>

UNI
QLO

LifeWear

셔츠의 여정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셔츠의
인생은
길구나!

